



정숙경 작 '봄날'



김광례 작 '즐거운 상상'



연극 '틈새' 초연에 앞서 밝은밤 단원들이 대본을 리딩하는 모습.

〈밝은밤 제공〉

# 환경·전쟁 등 이슈...은유적 시각으로 보다

호남조각가회 기획전,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김대승·선명희·김상옥 등 20명 참여...설치·조각·미디어 등

‘암연’이라는 작품 앞에 서면 몸서리 치는 한 인간의 절규가 들려온다. 온몸을 뒤로 젖힌 채 쓰러질 듯 무언가를 향해 외치는 사내는 어쩌면 내 안의 또다른 ‘나’일지 모른다. 내 안의 진짜의 ‘나’가 밖의 가짜의 ‘나’를 향해 강하게 힐난하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 절제정밀의 상황에 처한 어떤 사내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다. 사내는 부조리하고 엄혹한 시대를 향해 온몸으로 항거한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더불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탄으로도 읽힌다.

전시장에서 강렬하게 다가오는 작품은 김대승 작가의 ‘암연’. ‘슬프고 침울하게’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작품은 그렇게 아프게 다가온다. 시대상황을 읽어내는 것은 비단 이런 감상법만은 아닐 것이다.

제31회 호남조각가회 기획전이 시립미술관 금

남로분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전시 주제는 ‘넌지시 그러하다-메타포(METAPHOR)’.

호남조각가회는 호남대 조각전공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했다. 올해로 31주년이라는 긴 세월은 회원들 저마다에게 독특한 시각과 변화, 도약, 가능성을 선사했을 터였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20명이 25개 작품을 출품했다. 설치 조각, 조각, 미디어 등 작가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오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현대조각의 변화와 가능성을 담아냈다.

메타포라는 주제는 다양한 의미를 함의할 수밖에 없다. 작품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은 그런 연유다. 지구위기와 환경오염, 전쟁 등 불안한 시대상황을 표현한 작품도 있지만 사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순간을 포착한 작품도 있다.

김광례의 ‘즐거운 상상’은 보는 이에게 상상을

‘상상’하게 한다. 동물의 특징을 간략화하면서도 표정에 미소를 구현한 점이 이색적이다. 조각 작품 앞에서 동물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싶은 유쾌한 충동이인다.

선명희 작가의 ‘나비날다’는 환경에 대한 경고 내지는 나비들이 꾸는 꿈을 인간의 꿈에 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비를 조형화하면서도 그 나비가 생존하는 지구라는 생명체를 동일한 무게로 전경 화함으로써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밖에 김상옥 작가의 ‘희로애락’이 던지는 삶의 다채로운 표정들, 두 귀를 세우고 안타깝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김혜철 작가의 ‘기다림’, 근심걱정 없이 오수를 즐기는 여인을 표현한 정숙경 작가의 ‘봄날’, 위태로운 높이에서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이병선 작가의 ‘걸어가는 사람’ 등도 각기 색다른 울림을 준다.

한편 광주미협 박광구 회장은 “지난 1991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올해 31주년을 맞은 호남조각가회 조각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저마다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일구는 작가들의 조형세계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유령아이’

극단 밝은밤 창작극 ‘틈새’, 9일 광주교대 하정웅아트홀

‘지환’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이’로 평생 살아왔다. 어느 날 이튿날은 달리 낚고 허름한 ‘대박빌라’로 이사 온다. 이곳에서는 창문 ‘틈새’를 통해 건너편 고급 아파트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

극단 밝은밤의 창작극 ‘틈새’가 9일 오후 5시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하정웅아트홀에서 열린다. 청년들이 청년문제를 직접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공연은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유령아이’ 문제를 다룬다. 최근 언론 보도(5일 기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도 출생신고 없는 ‘유령 아이’는 34건이나 된다. 이런 사회문제와 맞물려 이번 연극은 ‘유령 아이’ 문제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암울한 시대상도 조명한다. 공연은 복지제도부터 양극화 문제 등 ‘틈새’를 보며 고뇌하는 주인공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극단은 “유령아이는 통계 밖에 존재하다가 사회에 진입할 시 여러 문제들을 동반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을 통해 유령아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희망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밝은밤 인스타그램 네이버 폼에서 예약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양철북’·‘인생’·‘모리스’·‘주홍글씨’·‘살인자의 기억법’...

## ‘20세기소설영화독본’ 하반기 프로그램 공개

‘양철북’, ‘경계선’, ‘인생’, ‘모리스’, ‘단순한 열정’, ‘주홍글씨’, ‘달과 6펜스’...

제목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세기의 고전이자 불후의 명작들이다. 이들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관객들에게 감동과 예술적 깊이를 선사했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대표 조대영·소설영화독본)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며 삶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탐색하는 인문학모임이다. 지난 2009년 1월 첫 모임 이후 15년 동안 진행해 광주 대표 인문학모임으로 자리잡았다.

소설영화독본이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먼저 19일에는 세기의 고전 ‘양철북’이다. 쿄터 그라스의 소설을 풀커 슐렌도르프 감독이 영화로 제작했다. 세 살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성장을 멈춘 오스키의 눈에 비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8월 2일에는 북유럽 신화 속 존재인 ‘트롤’을 현대로 소환한 작품 ‘경계선’을 만난다. ‘렛 미인’의 원작과 각본을 쓴 온 아이비데 린드크비스트의 원작을 알리 아바시가 영화화한 작품이다. 특별한 후각을 지닌 후티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작품은 선과 악, 분노와 이성, 문명과 자연 등 경계선 위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허삼관 매형기’로 유명한 위화의 소설을 장예모 감독이 영화로 만든 ‘인생’은 8월 16일 진행된다.



‘양철북’

중국 격변기 부장집 도련님에서 가난한 농부로 전락한 남자의 삶을 매개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초점화한다.

이밖에 ‘모리스’ (8월 30일), ‘단순한 열정’ (9월 6일), ‘주홍글씨’ (10월 4일), ‘달과 6펜스’ (11월 1일), ‘살인자의 기억법’ (12월 6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임은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격주 수요일(오후 7시)에 열린다. 참석 희망자는 책을 읽고 직접 영화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조대영 대표는 “모임은 소설과 영화라는 두 매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시야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며 “흔들려온 접하지 않을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취향도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아하고 기품 있는 ‘현의 소리’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1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우아하면서도 난이도 있는 현악 연주가 관객들을 맞이한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광주여성필)가 제65회 정기연주회 ‘사운드 오브 스트링’을 11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현의 소리’라는 주제처럼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꾸러지며, 첼리스트 이후성이 무대에 올라 현악의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및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겸임교수로 일하며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지휘자로 단상에 오르는 장혜윤은 이화여대 작곡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과(석사)와 미국 노스텍사스 대학에서 공부하며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이화여대에 출강 중.

공연은 평소 듣기가 쉽지 않은 레퍼토리로 구



오케스트라의 연주 장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공〉

성했다. 연주곡 중 ‘하이드의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제외한 작품들은 그동안 난이도 문제로 관객들이 공연장에서 감상하기 어려웠으나 과감하게 선곡했다는 것이 광주여성필의 설명. 공연장에는 위락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프리올 모음곡’, 바르톡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와 ‘루마니아 민속 무곡’이 올려 퍼질 계획

이다. 김유정 광주여성필 대표는 “이번 공연은 우수한 첼리스트와 지휘자를 모시고 진행되는 ‘초청 공연’이라는 점에서 단원들의 기대감도 크다”며 “여성단체만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연주가 아름답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봄에 떠나는 3월의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